

이슈

원화 강세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: 제조기업 조사 결과<sup>1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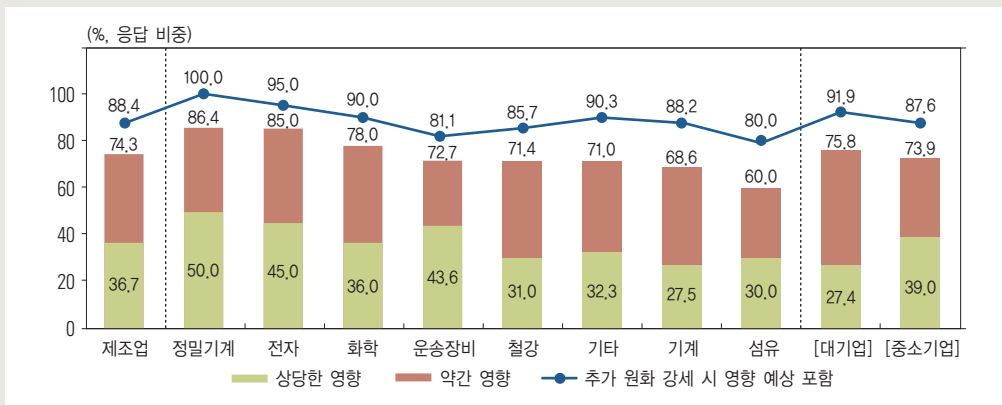
- 원/달러 환율이 연초 1,050원 수준에서 7월 초 한때 1,000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원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, 기업별 및 산업별 영향과 대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
- 산업연구원 미시산업통계 패널 DB를 활용하여 2014년 5~6월 중 설문조사하여 총 311개 업체들이 응답(환율 변동과 무관' 업체 제외 시 275개)

▶ 원/달러 환율의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▶ 원화 강세가 기업 활동에 미친 영향 여부



주 : 1) 막대 상대 수치는 '이미 영향' ('상당한 영향' 과 '약간 영향') 응답 비중을 의미  
 2) 업종 배열 기준은 기업 활동에 이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중의 순

1) 본고는 「e-KIET 산업경제정보」, “원화 강세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: 국내 제조기업 조사 결과”(2014.7.29, 발간)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기 자료를 참고

### ▶ 대다수 제조업체들이 원화 강세 위험에 직면

- 원화 강세(환율 하락)가 기업 활동에 미친 영향의 여부에 대하여 전체 응답 기업의 약 74%가 원화 강세로 기업 활동에 이미 영향을 받았고, 특히 이 중 절반(36.7%)은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
- 업종별로는 정밀기계, 전자, 운송장비 등에서 '상당한 영향'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고, 섬유와 기계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
-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'상당한 영향'을 받았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, 환율 변동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함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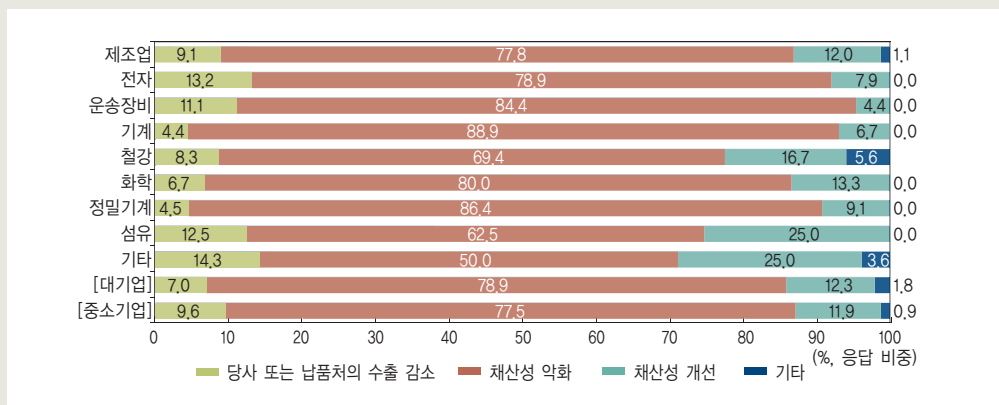
### ▶ 원화 강세의 주된 영향은 채산성 악화

- 원화 강세의 주된 영향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'채산성 악화'(78%)를 지목한 반면, '수출 감소' 응답은 약 9%에 그쳐 수출 매출의 감소 영향보다는 채산성 악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시사
- 업종별로는 기계와 정밀기계, 운송장비 등의 순으로 '채산성 악화' 응답이 가장 많았고, 수입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'채산성 개선'은 전체 응답의 약 12% 수준으로 섬유와 기타 제조업에서 많이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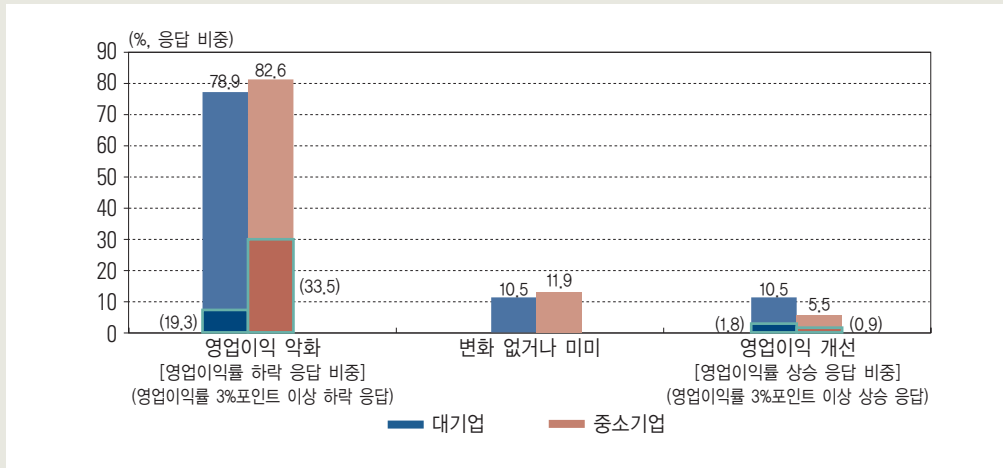
### ▶ 원화 강세는 특히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크게 악화

- 원화 강세가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정량 평가하기 위해서 원/달러 환율 10% 하락 시 영업이익률의 변화 정도로 조사한 결과, 기업 규모별 차이가 두드러져, 특히 중소기업의 채산성에 불리하게 영향
- \* '영업이익률 3%포인트 이상 하락' (응답 비중): 대기업 19%·중소기업 34%
- \* '영업이익 악화' (영업이익률 하락 응답): 대기업 79%·중소기업 83%
- \* '영업이익 개선' (영업이익률 상승 응답): 대기업 11%·중소기업 6%

### ▶ 원화 강세 영향의 주된 내용



▶ 원/달러 환율 10% 하락 시 기업 규모별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



주: 1) 원/달러 환율 10% 하락의 영향에 대한 기업들의 구간별 응답 비중  
 2) ( ) 안은 영업이익률 3%포인트 이상 하락(상승) 응답 비중

➡ 수출(납품)단가 변동 응답 70%, 수출물량 변동 없음 55%

- 한편 원화 강세로 인한 부문별 영향은 국내 기업의 약 70%가 '수출단가 변동'(향후 변동 예정 포함)을 응답한 데 반해,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이 '변동 없음'을 응답(55.5%)
- 업종별로는 '수출단가 변동' 응답이 화학, 전자, 정밀기계, 철강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, '수출물량 변동' 응답은 철강과 화학, 기타 제조업, 정밀기계 순으로 많이 조사

➡ 기업 대처 방안: '수출단가 인상', '환리스크 관리', '대책 없음' 순

- 원화 강세의 대처 방안으로 국내 기업들은 '수출단가 인상'(25%), '환리스크 관리 강화'(22%)를 응답하였고, '대책 없음'(18%)도 적지 않게 응답
-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'환리스크 관리 강화'와 '생산 해외 이전'을, 중소기업은 '내수 판매 비중 제고'를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

▶ 원화 강세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처 방안

단위: %, 응답 비중

	수출단가 인상	비가격 경쟁력 제고(품질/디자인 등)	생산 해외 이전	인건비 등 원가 조정	환리스크 관리 강화	내수 판매 비중 제고	별다른 대응 없음	기타
제조업	24.8	8	4.4	13.4	22	8.3	17.6	1.6
[대기업]	19.8	9.9	8.6	12.3	28.4	2.5	17.3	1.2
[중소기업]	26.2	7.2	3.3	13.8	20.3	9.8	17.7	1.6

주: 복수 응답 허용, 음영은 기업 규모별 최다 응답 항목

### ▶ 정부 정책 수요 : '환율의 안정적 관리' 요구가 지배적

- 원화 강세와 관련된 정부 정책 수요는 '환율의 안정적 관리'(74%)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고, 이어서 '수출금융/세제 지원 확대'(16%) 등을 요구
  - 정밀기계(32%), 섬유(25%), 운송장비(20%) 등은 '수출금융/세제 지원 확대' 수요가 많아 업종별 상황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검토할 필요
- 이번 조사 결과는 환율 변동에의 대응 능력이 취약하면서 환율 하락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이나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'환리스크 관리 지원'이나 '수출금융/세제 지원'이 필요함을 시사
- 나아가 원화 강세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원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 체질 및 구조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

▶ 작성 : 민성환(동향분석실 연구위원, 02-3299-3127)